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40)

【 렉시오 디비나의 역사 】

렉시오 디비나는 렉시오에 ‘디비나(Divina, 거룩한)’라는 형용사가 덧붙여진 단순한 독서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수도 생활사에서 렉시오는 독서의 대상, 방법, 목적 때문에 디비나-“하느님의, 거룩한, 신적인”으로 구분하여 쓰입니다. 따라서 렉시오가 독서를 하는 인간적인 활동을 함축한다면, 디비나는 그 독서가 초자연적인 활동임을 보여줍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독서·묵상·기도로 이루어진 유대교의 전통적인 방법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는 렉시오 디비나의 주제가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부들이 성서 독서(lectio)의 방법을 몸소 실천하였는데, 이것은 기도와 하느님 체험을 위한 탁월한 방식으로써 그리스도교 백성 가운데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침 시간에 성서를 묵상하였고, 식사 중에도 성서가 읽혀졌으며, 밤에 잠들기 전에도 다시 공동으로 성서를 읽었습니다.

초기 수도자들은 세속, 악마와 육체와 싸우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사막의 철저한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세기 말과 4세기 초에 수도승 운동이 일어났고, 렉시오 디비나는 수세기 동안 주로 수도승들 사이에서 실천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성서만이 신적 기원을 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독서는 철저히 배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렉시오 디비나는 소홀해졌습니다. 특히 클뤼니 수도원에서는 육체노동을 소홀히 하고 전례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수도생활의 세 축인 기도·일·렉시오 디비나의 균형을 반감시켰습니다.

11-12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본래의 수도생활로 되돌아가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수도생활에서 기도와 독서 그리고 노동의 조화를 회복하였으며 성서의 학문적 연구를 철저히 반대하였습니다. 중세 수도 전통은 성서에 대한 지적·학문적 접근을 거부하였습니다. 12세기의 시토회는 성서를 대함에 있어 학문적인 연구에 철저히 반대하여 하느님을 향한 내적 여정의 첫 단계로 독서를 체계화하였습니다. 13세기에 대학 수도승들이 출현되면서 전통적 지혜인 렉시오 디비나가 차츰 소멸되어 갔습니다. 특히 스콜라 학문의 영향으로 수도자들은 렉시오 디비나 시간에 온 마음으로 성서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기보다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질의와 논증을 추구하였습니다.

후세에 이르러 2차 바티칸 공의회(1965)는 교회 전통 안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렉시오 디비나를 재발견하였고, 요즘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글들이 조금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청담동성당 주임신부 김민수 이나시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감사헌금 (06/06~06/12)			
연중 제 10주일	14,247,750원	김 이레네	100,000원	이 경환프란치스코	100,000원
교무금	18,900,000원	박 아우구스티노	300,000원	박 말가리다	500,000원
성소후원금 (5건)	50,000원	서 프란치스코	5,000,000원	황 모니카	100,000원
교무금 납부 현황		장 베로니카	300,000원	윤 세실리아	50,000원
총 세대수	3,998세대	합계 : 6,450,000원			
총 납부세대	1,173세대				
지난주 납부세대	8세대				
총 납부율 (%)	29.3%				